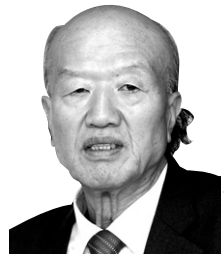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논문표절 근절 위한 도덕·제도 대책 시급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

최근 우리사회는 수많은 사회 지도층의 논문표절 논란을 겪고 있다. 탤런트 김혜수, 스타강사 김미경, MC 김미화 등 방송인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후보자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까지 전방위적으로 학위논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가히 표절공화국이라 칭할 만하다.

왜 논문 표절사건이 잇달아 터지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사회는 경쟁사회로 학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 너도 나도 학위 하나쯤은 있어야 인정 받는 세상인 것이다.

예로부터 박사는 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총합해 다른 이들을 지도할 만한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자신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일

반해 왔다. 그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현재 시스템 상 학위논문을 통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논문의 수도 범람한다. 예전과 달리 논문 수가 늘어나며 학계에 이슈를 낳는 특정 논문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각 학위 논문을 눈여겨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논문 표절의 유혹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논문 표절 발생은 학위논문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의 소홀함과 해당 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문 검증시스템 미비 등 외부요인이 있지만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스스로 양심을 숙이고 자기인격을 낮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본질서가 붕괴현상이 신성해야 할 살아탐에 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길은 긴 인생과 같다. 스스로의 실력을 끊임없이 닦아 내면에서 지혜가 우러나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겉치레 학위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애시당초 버려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

하다. 그렇다면 논문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심(萬法唯識)이라 하셨다. 일체현상이 '알'이며, 이는 모두 마음의 표현이라 하신 것이다. 우리가 청정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또한 청정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다.

먼저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 부정, 불신을 제거해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열의가 모여야 한다. 사회지도층부터 정의 구현에 힘을 모으고, 스스로 청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논문표절을 비롯해 대학 사회 만연한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후배 교수들의 심기일진이 필요하다.

후배 교수들이 학문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논문표절의 외부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국차원에서 논문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양한 IT기술이 발달해 있다. 당국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논문검증 시스템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논문 표절이 드러날 경우 학위취소는

물론 공기업, 교육기관의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로서의 양식이 부족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 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이 학위신청자와 부정거래를 하거나 논문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

표절 논문을 통과시켰을 경우 교수의 경우 정직 해임 뿐만 아니라 민형사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각 대학 당국이 단과대학, 학부, 학과에서 표절논문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학과나 학부에 대학원 과정을 폐쇄까지 단계적으로 별점을 부과하고 대학장, 학부장, 학과장들에게 행정책임을 묻는 책임제도 마련도 진행되어야 한다.

작금의 논문표절 사태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예전보다 투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를 맑게 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다.

社說

오현 스님의 아름다운 만해마을 기부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이요 쉼터인 인제 만해마을이 동국대에 기부됐다. 이에 만해마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속시설로 편입돼 '동국대 인제 만해마을 캠퍼스'로 이름이 바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4월 3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만해마을 무상 증여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동국대에 기증된 만해마을은 2003년 준공됐다. 매년 만해축전 8월경에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중 학술대회, 만해백일장, 시인학교, 서예대전 등을 개최해 온 명실공히 우리 불교계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와 문화계의 대표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곳 만해마을의 조성에는 신홍사 조실 오현 스님의 공이 컸다.

오현 스님은 그동안 만해마을을 건립해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불교사상, 문학정신 등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백담사 만해마을'이 이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만해

축전을 단순 백담사의 사찰행사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수상자들의 의견이 국내외 저명인사들로 넓혀지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입지를 굳혔다.

오현 스님은 기증식에서 "행사·축전 등을 위해 (지자체 등에) 돈 달라는 것은 승복 입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집(만해마을)을 짓기는 했는데 어디에 갔다 버릴까 고민하다 동국대 기증을 결심했다. 인제군민의 군내 대학 유치 염원도 이를 수 있겠다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오현 스님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제 백담사 서불사 운영권을 지역민에게 넘겨 주고, 만해축전 때는 동내 이장을 단상에 앉게 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를 크게 배려해 왔다. 오현 스님의 아름다운 만해마을의 기부 회향을 보면서 히행기님의 '낙화' 한 대목이 떠오른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종교간 정부 예산 특혜 시비 종식되길

2010년부터 근자까지 일부 개신교가 주장한 불교계의 정부 예산 특혜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창립한 정책연구모임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종교는 개신교에 가까웠다. 실제 개신교는 2010년 1183억 원, 2011년 136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줄기는 했으나 1148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는 2010년과 2011년 800~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2012년 1270억 원으로 상승됐다. 지난해 예산만 놓고 볼 때 불교와 개신교는 120억 원의 예산차이를 보이나 3년 간의 추이를 산정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불교가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받는

예산이 모두 특혜인 듯 호도했다. 심지어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모두 환수하라며 지방보살상을 사탄이라고 운운하는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웃종교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번 연구 조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의 정부 예산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시비를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만 불교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이 많았고, 사학과 복지재단이 많은 개신교는 이에 대한 많은 예산을 받았다.

상대 종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종교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선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허구적 주장을 통해 이웃종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발언대

연등회 자원봉사에 거는 기대

5월 11~12일 열리는 2013 연등회를 위해 국내 최초로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단'이 창단됐다. 한국불교와 연등회의 국제화를 위해 한 마음이 된 청년들과 대불정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자발적 체험 연등회 세계화 초석



전준호 중앙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축제 참가자가 아닌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연등회만의 자라는 다른 축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발성과 역동성에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손수 장엄등과 행렬등을 만들고, 울등을 배우며, 팀워크를 맞춰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교육 과정은 10여 개 국가 70여 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등회를 중심으로 불교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서로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교류를 통한 문화 이해를 하게 되며,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연등회에 참여해서는 내·외국인을 도와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겁니다. 중간에 포기 하지 마시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함께해서 세계인의 축제 연등회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불정은 전 세계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체험활동이 연등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등회, 카메라에 직접 담을 것



매우 로셀로 가르시아 프리랜서·프랑스

현재 한국의 경제와 IT산업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곳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목표를 세웠다. 바로 한국, 한국인, 특히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불교는 유교, 개신교(불교와 유교만큼은 아니지만)와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적 근간을 마련했다.

나는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찰을 탐방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제는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다.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금세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불교 등 한국의 총체적인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수행 체험이 기대된다.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연등회를 내 카메라에 직접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한국문화와 한국인 정말 좋아요



비탈리아 라드제비시비에 학생·리투아니아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정말 좋아한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고 낯선 것을 경험하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지 알고 싶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

폴카니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 보다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져라. 현실 시대 혹은 과거의 사람들을 능가하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이 격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이 격언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한 관광객으로서 연등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등회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또한 명상과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축제 당일에 방문객들을 돕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또한 행사전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조별로 주어진 과제와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대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 재밌고 의욕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www.hyunbul.com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6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역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미안마문화원